

한복 배색에 관한 연구

- 2005~2010년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

이 경 은 · 조 우 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석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Study on Color Coordination of Hanbok

- Focusing on Chima, Jegori in 2005~2010 -

Kyeong-Eun Lee · Woo-Hyun Cho**

M.A.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13. 3. 28. 접수; 2013. 5. 23. 수정; 2013. 5. 30. 채택)

Abstract

Modern Hanbok uses newly different color coordination based on traditional color coordination and symbolic meaning. Thus,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aspects of color coordination and symbolic meaning and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Hanbok as the data of corresponding period in the modern times. In order to investigate recent trend of preferred colors and color coordination of Hanbok,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of 2005~2010. When analyzing colors of Jegori(jacket), Wh, Y, B, YG, P and Gy series are shown in order. For trends for color of Chima(skirt), Pk, R, P, Gy and Bk series are shown in order. When you look into the color coordination of skirt and jacket on whole, color coordination of Pk-Wh represents the highest frequency. Color coordinations of Pk-Y, Pk-B, R-Y, R-G and Pk-G are followed in order. Color coordinations of R-YG, Bk-Wh, O-Y, P-Wh, Pk-YG, Gy-Y, R-Wh series and Gy-Wh are followed in order. When looking into characteristics of overall color coordination of Hanbok, it was shown that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to meet a variety of culture and various colors had emerged depending on individual taste and skin color in the modern times within the framework of basic colors of woman's 'Nokeuihongsang'(Green upper garment and red skirt) R-G, Y series, which are traditionally inherited. In addition, unlike existing traditional color coordination of five elements in the past, P, Gy and Bk series of color appeared in the skirt and Jacket.

It could be affected by fashionable drama and films at that time and newly attempted colors ahead of fashion were reflected on the magazine. Therefore, it implied that it naturally gave new awareness of colors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width of selection of colors became diverse.

Key Words: Magazine(잡지), Modern hanbok(현대 한복), Jegori color(저고리 색), Chima color(치마 색), Hanbok color coordination(한복배색)

I. 서론

근래 한복의 색상은 전통적인 배색과 그 상징적 의미를 기본으로 새로운 배색을 사용하는 경

항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는 흔히 음양과 오방색의 조화를 이루며 한국인에게 오색은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의미가 부여되어 색의 사용에 있어서 시각적인 의미보다는 관념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었으며 색 자체 보다는 색이 가지는 상징과 의미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었다(김미진, 2006).

과거 신부의 전통한복 색상은 적색치마와 노랑저고리 위에 혼례 예복으로 원삼을 입었는데 겹감은 연두색, 안감은 홍색(紅色), 선단은 남색(藍色)을 사용한 것은 음양의 조화와 배색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해원 풍속화의 여자복색은 흰색과 옥색 치마저고리가 제일 많고, 남색 치마에 옥색·연두·두록(豆綠)·분홍·치자색저고리 그리고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었다(박경자, 임순영, 1983).

최근 한복 배색에 관하여는 조우현·이호정(2012), 변현실(2011), 송경자, 이혜숙(2009), 김선아(2008), 이영혜, 강순제(2007), 이지현(2007), 김미진(2006) 등의 연구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김선아(2008)는 한복 배색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시대 치마·저고리 배색 특성에 관하여 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대홍치마에 자적색 저고리와 같은 유사색의 배색, 홍색치마에 초록저고리와 같은 보색의 배색, 자적색이나 남색으로 동색의 치마·저고리 배색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근대 유물을 통하여 여자한복의 전통 색을 살펴보면 저고리는 Y, W, R 계열이었고 치마는 시기에 따라 폭 겹감에 사용된 주색상이 Y, PB, Y, R 계열의 순서로 변화하며 안감은 주로 R, RP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다(조우현, 이호정, 2012).

또한 한국 근대화화와 당대의 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색채와 배색은 저고리는 흰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치마·바지에도 흰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저고리의 경우보다 다른 색채의 빈도 격차가 낮아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고 단색과 2색, 3색, 4색 배색이 보였으며 복식의 면적의 차이에 따라 명도와 채도를 달리하여 색채 조화를 이루었다(김미진, 2006).

이상과 같이 한복 배색의 특징은 전통적인 색상에 명도와 채도 등의 전체적인 배색의 표현이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잡지를 통하여 보는 한복

배색은 저고리 유물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자료의 한계를 벗어나 착용상의 한복의 배색을 살펴볼 수 있는 접근의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 치마, 저고리의 색상과 유행 배색을 분석한 심도 있는 연구 성과가 미비하므로 치마, 저고리가 함께 어울려져 배색을 볼 수 있는 한복잡지를 연구대상으로 집중 활용하였다. 대상 년도는 2005년에서 2010년의 6년간으로 정하여 과거 음양의 조화를 이룬 한복색상에서 현대 전통한복의 색상 추이를 살펴보고 배색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최근 사회적 현상과 흐름은 개인의 수명이 연장되고 개인이 스스로를 책임져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전통한복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 미디어의 역할이 2005년 전후로 하여 극중 의상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한 패션’사업(2007), ‘한 브랜드화’사업(2004) 등의 국가사업으로 인해 한복 유행에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영애, 2011).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조사는 최근 한복의 유행색과 한복배색의 경향을 2005~2010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시대적 유행 경향을 담고 있으며 한복을 살펴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결혼 잡지 3종류 H(한복의 美)잡지, W(웨딩 21)잡지, M(마이웨딩)잡지를 선정하였고,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된 한복 사진을 수집하였다. 조사된 치마저고리의 색상 중에서 삼회장, 반회장 깃 옷고름 등 부분적인 색상은 제외하고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구조와 경향의 파악이 가능한 일색(一色)으로 각각을 활용하였다.

수집한 한복이미지는 2005년도 H잡지 40장, W잡지 8장, M잡지 11장으로 총 59장, 2006년도 H잡지 53장, W잡지 32장, M잡지 13장으로 총 98장, 2007년도 H잡지 47장, W잡지 58장, M잡지 61장으로 총 166장, 2008년도 H잡지 58장, W잡지 40장, M잡지 69장으로 총 167장, 2009년도 H잡지 75장, W잡지 30장, M잡지 41장으로 총 146장, 2010년도 H잡지 23장, W잡지 35장, M잡

지 55장으로 총 113장으로 총749장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보조 자료는 본 연구자가 2006~2010년까지 수집한 한복 Shop(이리자한복)에서의 맞춤 한복의 배색 112점을 추가로 분석하여 유행하는 한복과 실제 구매 한복의 배색의 차이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년도 별 한복잡지 사진 수(數)

년도	H잡지	W잡지	M잡지	합
'05	40	8	11	59
'06	53	32	13	98
'07	47	58	61	166
'08	58	40	69	167
'09	75	30	41	146
'10	23	35	55	113
합	296	203	250	749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Adobe Photoshop CS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복 치마, 저고리 상·하의 비율에 따른 칼라칩을 만들어 잡지에 쓰인 한복 배색을 파악하였다. 한복의 비율은 한복잡지사진 15장을 선정하여 치마, 저고리 비율을 계산한 후 가장 많이 나온 중간 값과 색을 인식하기에 적합한 비율을 찾아 기준으로 잡았다. 둘째, Photoshop으로 작업한 칼라칩을 먼셀 표색계를 기초로 한 KS A 0011에서의 물체색의 색명 구분에 의거하여 유채색과 무채색의 기본색명을 계열별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분하고 잡지에 쓰인 한복 배색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III. 저고리·치마 색 분포 및 색상의 추이(推移)

1. 저고리 색

1) 저고리 색상의 분포

저고리의 계열은 물체색의 색 이름 구분에 의거하여 R(빨강)계열부터 Bk(검정)계열로 분류하

였다. 이후 표의 구분에서 상(上)은 저고리, 하(下)는 치마를 의미한다.

H, W, M 잡지의 저고리 색상을 분석한 결과 계열의 색상 빈도수가 거의 비슷한 경향인데 잡지의 저고리 색상을 합하여 년도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5년에는 Y(노랑)계열 16(28.1%), B(파랑)계열 10(17.5%), P(보라)계열 8(14.0%), Wh(하양)계열 7(12.3%), YG(연두)계열6(10.5%) 순이며 2006년에는 Y(노랑)계열 22(22.9%), Wh(하양)계열 16(16.7%), YG(연두)계열12(12.5%), B(파랑), Gy(회색)계열 10(10.4%)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Wh(하양)계열29(17.8%), Y(노랑)계열 27(16.6%), YG(연두), Pk(분홍)계열 16(9.8%) 순이며 2008년도에는 Wh(하양)계열 31(18.9%), Y(노랑)계열 21(12.8%), YG(연두), P(보라), Pk(분홍)계열 15(9.2%)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Wh(하양)계열 31(21.8%), Y(노랑)계열 22(15.5%), B(파랑)계열 15(10.6%) 순이며, 2010년도에는 Wh(하양)계열 29(26.4%), Y(노랑)계열 19(17.3%), YG(연두)계열 9(8.2%)로 나타났다.

6년 동안 저고리 색상 계열은 Wh(하양)계열이 143(19.5%)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Y(노랑)계열 127(17.4%), B(파랑)계열 70(9.6%), YG(연두)계열 62(8.5%), P(보라)계열 62(8.5%), Gy(회색)계열 51(7%)순으로 나타났다. Wh(하양)계열의 저고리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저고리 색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Gy(회색)계열도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2).

2) 색상의 추이(推移)

저고리 색상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그룹핑(Grouping)의 결과 Y(노랑)계열은 전반적으로 높은 빈도가 나왔다. YG(연두)계열은 2006~2008년도에 주로 나타났으며 B(파랑)계열은 2005~2009년에 빈도수가 높았다. P(보라)계열은 2007~2009년도에 주로 나타났으며 Wh(하양)계열은 2005년보다 2006~2010년도에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저고리의 전통 색상인 Y(노랑)계열에서 Wh(하양)계열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흰색을 주로 착용하였던 근대에는 일제에 의한 통치기간 내내 복식 개량의 핵심목표였던 백의금

〈표 2〉 저고리 색상 계열별 수, 각 색상 백분율(%)

(上 : 저고리 색, N : 數)

년도	上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05	N	4	2	16	6			10	1	8		2		7	
	%	7	3.5	28.1	10.5			17.5	1.8	14		3.5		12.3		1.8
'06	N	2	2	22	12	1		10	3	4		4	4	16	10	6
	%	2.1	2.1	22.9	12.5	1		10.4	3.1	4.2		4.2	4.2	16.7	10.4	6.3
'07	N	8	2	27	16	8	9	13	2	14	1	16	4	29	9	5
	%	4.9	1.2	16.6	9.8	4.9	5.5	8	1.2	8.6	0.6	9.8	2.5	17.8	5.5	3.1
'08	N	7	4	21	15	3	11	14	7	15	2	15	4	31	12	3
	%	4.3	2.4	12.8	9.2	1.8	6.7	8.5	4.3	9.2	1.2	9.2	2.4	18.9	7.3	1.8
'09	N	3	2	22	4	2	5	15	9	13	3	5	4	31	12	12
	%	2.1	1.4	15.5	2.8	1.4	3.5	10.6	6.3	9.2	2.1	3.5	2.8	21.8	8.5	8.5
'10	N	5	1	19	9	7		8	2	8		8	4	29	8	2
	%	4.6	0.9	17.3	8.2	6.4		7.3	1.8	7.3		7.3	3.6	26.4	7.3	1.8
합	N	29	13	127	62	21	25	70	24	62	6	50	20	143	51	29
	%	4	1.8	17.4	8.5	2.9	3.4	9.6	3.3	8.5	0.8	6.8	2.7	19.5	7	4

지는 흰색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선호색이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민족색임을 알 수 있는데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애국심이 고취되어 한복의 착용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때 흰색의 한복을 많이 착용되었으리라 짐작될 수 있다(김미진 외, 2005).

이와 같이 흰색은 우리 민족의 색상으로 어떤 계열의 치마색도 잘 어울리며 저고리에서도 동정을 달았을 때 훨씬 더 얼굴이 집중되는 역할처럼 흰 저고리를 입었을 때의 화사함과 모든 배색에 잘 어울리는 장점과 더불어 옛것을 추구하려는 복고풍의 영향이 서로 연결된 결과라고 생각된다(표 3).

2. 치마 색

1) 치마색상의 분포

한복 치마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시각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난다. 2005년도에는 R(빨강)계열 14(24.6%), bV(남색)계열 7(12.3%), P(보라), Br(갈색)계열 6(10.5%) 순이

며, 2006년도에는 R(빨강)계열 22(23.4%), Pk(분홍)계열 15(16%), P(보라)계열 14(14.9%), Bk(검정)계열 10(10.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에는 Pk(분홍)계열 35(21.3%), R(빨강)계열 22(13.4%) O(주황), P(보라)계열 14(8.5%) 순이며, 2008년도에는 Pk(분홍)계열 36(21.7%), P(보라)계열 25(15.1%), R(빨강)계열 23(13.9%)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Pk(분홍)계열 38(26.4%), R(빨강)계열 20(13.9%), Bk(검정)계열 16(11.1%) 순이며 2010년도에는 Pk(분홍)계열 38(33.9%), P(보라)계열 19(17%), Gy(회색)계열 12(10.7%) 순으로 보인다.

6년 동안 치마 색상의 계열은 Pk(분홍)계열 165(23%)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R(빨강)계열 110(14.9%), P(보라)계열 88(11.9%), Gy(회색)계열 62(8.4%), Bk(검정)계열 56(7.6%) 순으로 나타났다. Pk(분홍)계열의 치마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치마 색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P(보라), Gy(회색), Bk(검정)계열도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3> 2005~2010년 잡지에 나타난 저고리 색

(上 : 저고리 색)

년도	上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05	H	■	■	■	■			■		■		■		■		■
	W	■		■	■			■	■					■		
	M	■	■	■				■		■		■				
'06	H		■	■	■			■	■	■		■		■	■	■
	W	■		■	■			■	■			■	■	■	■	■
	M	■	■	■		■		■		■		■	■	■	■	
'07	H	■	■	■	■	■	■	■		■		■	■	■	■	■
	W		■	■	■	■	■	■	■	■	■	■	■	■	■	■
	M	■		■	■	■	■	■	■	■		■	■	■	■	
'08	H	■	■	■	■	■	■	■	■	■		■	■	■	■	■
	W	■	■	■	■		■	■		■		■		■	■	■
	M	■		■	■	■	■	■	■	■	■	■	■	■	■	■
'09	H	■	■	■	■		■	■	■	■	■			■	■	■
	W			■	■	■		■	■	■		■	■	■	■	■
	M	■		■			■	■	■	■		■	■	■	■	■
'10	H	■		■	■			■		■		■	■	■	■	■
	W	■		■	■	■		■	■			■		■	■	■
	M	■	■	■	■	■			■	■		■	■	■	■	

<표 4> 치마 색상 계열별 수, 각 색상 백분율(%)

(下: 치마 색, N : 數)

년도	下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05	N	14	3	1	2	1	2	1	7	6	3	3	6		5	3
	%	24.6	5.3	1.8	3.5	1.8	3.5	1.8	12.3	10.5	5.3	5.3	10.5		8.8	5.3
'06	N	22	6	4		2	1	6	5	14	1	15	2		6	10
	%	23.4	6.4	4.3		2.1	1.1	6.4	5.3	14.9	1.1	16	2.1		6.4	10.6
'07	N	22	14	10	7	3	4	5	10	14	5	35	10	2	12	11
	%	13.4	8.5	6.1	4.3	1.8	2.4	3.1	6.1	8.5	3.1	21.3	6.1	1.2	7.3	6.7
'08	N	23	6	10	7	1	4	6	4	25	8	36	7	1	14	14
	%	13.9	3.6	6	4.2	0.6	2.4	3.6	2.4	15.1	4.8	21.7	4.2	0.6	8.4	8.4
'09	N	20	8	11	5	2	2	3	7	10	5	38	4		13	16
	%	13.9	5.6	7.6	3.5	1.4	1.4	2.1	4.9	6.9	3.5	26.4	2.8		9.0	11.1
'10	N	9	5	5	3			7	4	19		38	8		12	2
	%	8	4.5	4.5	2.7			6.3	3.6	17	0	33.9	7.1		10.7	1.8
합	N	110	42	41	24	9	13	28	37	88	22	165	37	3	62	56
	%	14.9	5.7	5.6	3.3	1.2	1.8	3.8	5	11.9	3	23	5	0.4	8.4	7.6

2) 색상의 추이(推移)

치마의 색상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그룹핑(Grouping)의 결과 R(빨강)계열은 2005~2009년에 꾸준히 높게 보이다가 2010년도에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가 있다. 아마도 2010년에 Pk(분홍)계열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P(보라), Gy(회색) 계열이 높게 나타난 영향이라 생각한다. P(보라)계열의 경우 2006~2010년도에 높은 빈도가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Pk(분홍)계열의 경우 2006~2010년에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2010년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졌다. Gy(회색)계열의 경우 2007~2010년까지 다른 색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Bk(검정)계열은 2006~2009년도에 높은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치마색은 전체적으로 Pk(분홍), R(빨강), P(보라), Gy(회색), Bk(검정)계열 순으로 나타났는데 치마

색이 R(빨강)계열을 유지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Pk(분홍)계열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5).

그 이유로는 우선 핑크(Pink)마케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핑크마케팅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컬러마케팅으로 반응이 좋아 화장품, 패션, 전자분야에서도 도입했는데 LG전자 MC디자인연구소 김진 소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섬세한 여성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06). 핑크에는 순수하고, 성숙한 세련된 아름다움과 도전적인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으며 가장 여성스러운 컬러인 동시에 여성들이 자아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오수연, 2006). 그리고 2006~2010년도에 치마 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P(보라), Gy(회색), Bk(검정)색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계열의 색상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2005~2010년 잡지에 나타난 치마 색

(下 : 치마 색)

년도	下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05	H	■■■■■	■■■				■	■	■■■■■	■■■■■	■■■	■	■■■■■		■■■■■	■
	W	■		■	■				■■	■		■				■
	M	■■■			■	■	■		■	■■■			■			■
'06	H	■■■■■	■■■■■	■				■■■■■	■■	■■■■■	■	■■■■■			■■■■■	■■■■■
	W	■■■■■	■■■	■■■		■		■■■■■	■	■■■■■		■■■■■				■
	M			■		■	■		■■■			■	■■■			■■■
'07	H	■■■■■	■■■■■	■■■■■	■■■			■■■■■	■	■■■■■		■■■■■	■■■■■		■■■■■	■■■■■
	W	■■■■■	■■■■■	■■■■■	■■■■■	■■■		■■■■■	■■■■■	■■■	■■■	■■■■■	■■■		■■■■■	■■■■■
	M	■■■■■	■■■■■	■■■■■	■■■■■		■■■■■		■■■■■	■■■■■	■■■■■	■■■■■	■■■■■		■■■■■	■■■■■
'08	H	■■■■■	■■■■■	■■■■■	■	■		■■■■■	■■	■■■■■	■■■	■■■■■	■■■■■		■■■■■	■■■■■
	W	■■■■■	■	■■■	■			■■■■■	■	■■■■■		■■■■■	■■■		■■■■■	■■■■■
	M	■■■■■	■■■	■■■■■	■■■■■		■■■■■	■		■■■■■	■■■■■	■■■■■	■■■■■		■■■■■	■■■■■
'09	H	■■■■■	■■■	■■■■■	■■■■■	■		■■■■■	■■■■■	■■■■■	■■■	■■■■■	■■■■■		■■■■■	■■■■■
	W	■■■	■■■■■	■■■■■	■■■			■		■■■■■		■■■■■			■■■■■	■
	M	■■■■■	■■■■■	■■■■■		■	■■■		■■■■■	■	■■■	■■■■■	■		■	■■■■■
'10	H	■		■	■			■■■■■	■■	■■■■■		■■■■■	■■■		■	■■■
	W	■■■	■■■	■	■			■■■■■	■■	■■■■■		■■■■■	■		■■■■■	
	M	■■■■■	■■■■■	■■■■■	■			■■■■■		■■■■■	■■■■■	■■■■■	■■■■■		■■■■■	■■■■■

IV. 한복 배색의 분석

1. 잡지에 나타난 한복 배색

1) 치마, 저고리 배색의 분포

최근 한복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색채에 관한 요구가 증가되어 전통한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색상 외에 다양한 색들이 사용되고 있다(강경자, 정수진, 2007). 이러한 색채는 한복 구매 시 선호되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유행색을 살펴보기 위하여 잡지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 배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에 나타난 한복배색을 전체 배색비율을

<표 6> 치마, 저고리 배색 계열별 수, 배색 백분율(%)

(上: 저고리 색, 下: 치마 색, N: 數)

下	上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N			19	15	16	4	9	3	4		1	2	12	3
	%		2.7	2.1	2.3	0.6	1.3	0.4	0.6		0.1	0.3	1.7	0.4	0.3	
O	N		13	8	6	1	7		3		1	1	9	4	4	
	%		1.8	1.1	0.9	0.1	1.0		0.4		0.1	0.1	1.3	0.6	0.6	
Y	N	2	4	2	1	2		2	2	4	1	4	5	4	2	3
	%	0.3	0.6	0.3	0.1	0.3		0.3	0.3	0.6	0.1	0.6	0.7	0.6	0.3	0.4
YG	N	1	2	3		1		2	2	3		5		7	1	1
	%	0.1	0.3	0.4		0.1		0.3	0.3	0.4		0.7		1.0	0.1	0.1
G	N		2				1		3						1	
	%		0.3				0.1		0.4						0.1	
BG	N			2	1					2			2	1		
	%			0.3	0.1					0.3			0.3	0.1		
B	N	3		4	2			1	1	5		5		8	5	3
	%	0.4		0.6	0.3			0.1	0.1	0.7		0.7		1.1	0.7	0.4
bV	N	4		2		1		4		2				3	1	
	%	0.6		0.3		0.1		0.6		0.3				0.4	0.1	
P	N	1		9	10	1		7	1	7	1	8		13	8	1
	%	0.1		1.3	1.4	0.1		1.0	0.1	1.0	0.1	1.1		1.8	1.1	0.1
rP	N			2	2	1	1	5	3	1			1	3	4	1
	%			0.3	0.3	0.1	0.1	0.7	0.4	0.2			0.1	0.4	0.6	0.1
Pk	N			36	12	16	1	23		7		9	3	58	8	4
	%			5.1	1.7	2.3	0.1	3.3		1.0		1.3	0.4	8.2	1.1	0.6
Br	N	4		5	2	1		6		6		2	4	7	5	3
	%	0.6		0.7	0.3	0.1		0.9		0.9		0.3	0.6	1.0	0.7	0.4
Wh	N		1					1	1						1	
	%		0.1					0.1	0.1							
Gy	N	5		12	1					11	1	9		12		
	%	0.7		1.7	0.1					1.6	0.1	1.3		1.7		
Bk	N	1	5	8	2			6		5	2	3	3	14	6	
	%	0.1	0.7	1.1	0.3			0.9		0.7	0.3	0.4	0.4	2.0	0.9	

백분율(%)로 보았을 때 Pk(분홍)-Wh(하양) 배색이 58(8.2%)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Pk(분홍)-Y(노랑) 배색이 36(5.1%), Pk(분홍)-B(파랑) 배색이 23(3.3%) 나타났고 R(빨강)-Y(노랑) 배색이 19(2.7%), R(빨강)-G(초록), Pk(분홍)-G(초록) 배색이 16(2.3%)로 나타났다. 그리고 R(빨강)-YG(연두) 배색이 15(2.1%)로 나타나고 있으며, Bk(검정)-Wh(하양)배색이 14(2.0%), O(주황)-Y(노랑), P(보라)-Wh(하양) 배색 13(1.8%), Pk(분홍)-YG(연두), Gy(회색)-Y(노랑), R(빨강)-Wh(하양), Gy(회색)-Wh(하양)배색이 12(1.7%)로 나타나고 있다.

배색의 높은 빈도 색상은 Pk(분홍)계열에 치마에 Wh(하양), Y(노랑), B(파랑), G(초록), YG(연두) 계열 순으로 저고리 색상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R(빨강)계열에 치마에는 Y(노랑), G(초록), YG(연두), Wh(하양), B(파랑) 계열 순으로 저고리와 배색을 이루며 나타났다(표 6).

2) 배색의 추이(推移)

잡지에 나타난 한복 배색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 봄·여름과 가을·겨울로 나눠 그룹핑(grouping)을 하였고 봄·여름은 3월부터 8월, 가을·겨울은 9월부터 2월까지로 정하였고, 총 749점의 배색 중 봄·여름은 421점, 가을·겨울은 328점을 살펴보았다. 계열도 그룹핑한 결과 R, O, rP는 Red계열(R-P)로 Y, YG, Br, G는 Yellow계열(Y-G) 그리고 BG, B, bV, P는 Blue계열(BG-P)과 Pink계열 Wh, Gy, Bk계열(Wh-Bk)은 무채색으로 나눠보았다. <표 7>에서 직사각형의 상단은 저고리 하단은 치마의 면적이다.

R(빨강)계열의 치마에는 Y(노랑), G(초록), YG(연두), Wh(하양), B(파랑)계열의 저고리 색상이 배색되었고 O(주황)계열의 치마에는 Y(노랑), Wh(하양), YG(연두)계열 저고리가 배색을 이루며 B(파랑)계열 치마에는 Wh(하양)계열 저고리가 배색으로 나타났다. P(보라)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G(연두), Y(노랑), Pk(분홍), Gy(회색)계열 저고리가 배색을 이루었다. Pk(분홍)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B(파랑), G(초록), YG(연두), Pk(분홍), Gy(회색)계열 순으로 저고리 색상이 배색을 이루며 나타났다. Gy

(회색)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P(보라), Pk(분홍)계열 저고리가 배색을 이루며 Bk(검정)치마에는 Wh(하양), Y(노랑)계열 저고리 배색이다(표 7).

치마, 저고리의 배색을 봄·여름과 가을·겨울로 그룹핑할 경우, 봄·여름의 치마색은 R-rP, Pk, BG-P계열 치마색이, 저고리 색은 Y-G계열과 Wh-Bk, BG-P계열 저고리가 높은 빈도수가 나타났다. 반면 가을·겨울의 치마색은 R-rP계열, Pk계열의 치마색이 봄·여름에 비해 그 빈도수는 높지 않아도 Gy-Bk계열의 치마에 R, Y, B, Pk계열의 저고리 색이 고루 분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고채도·고명도의 색상을 많이 볼 수 있으며(이재만, 2005) 계절에 따라 풍경색은 달라진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철쭉 등 꽃들이 지닌 봄이 주는 색상이 있으며 여름에는 아카시아 등 흰색 꽃이 피기 시작하고 나뭇잎의 초록색과 푸른 바다색을 볼 수 있다. 5월 단오 날이면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날아 구름 속을 나무끼다-」시처럼 옥비녀로 쪽을 지고 자주삼회장저고리에 남치마를 입고 혼인전의 아가씨는 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었듯이(金裕卿, 1978) 계절에 맞게 옷의 색을 바꾸어 입었다.

가을에는 은행나무의 노란색과 붉은색, 갈색의 단풍을 볼 수 있으며 겨울에는 흰 눈의 하얀색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자연이 주는 계절의 색상은 한국의 치마, 저고리 배색에도 영향을 주었고 현대의 치마, 저고리 배색에 다양한 배색이 사용되었으나 색상의 빈도수를 살펴볼 때 계절에 따른 자연의 색과 연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2. 드라마의 한복배색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하면서 사극에 사용되었던 한복의 색채에 대중들의 관심이 확대되었다. 사극에 등장하는 한복 색채는 인물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색채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대중들에게 감성적으로 인식되었다(변현실, 2011).

이영혜, 강순제(2011)는 2000년대 사극의상이

<표 7> 잡지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 배색

(上: 저고리 색, 下: 치마 색)

	上						下					
	Red	Yellow	Bule	Pink	무채색		Red	Yellow	Bule	Pink	무채색	
下	R-rP	Y-G	BG-P	Pk	Wh-Bk	下	R-rP	Y-G	BG-P	Pk	Wh-Bk	
봄 · 여름	R-rP						R-rP					
	Y-G						Y-G					
	BG-P						BG-P					
	Pk						Pk					
	무채색						무채색					
						가을 · 겨울						
							R-rP					
							Y-G					
							BG-P					
							Pk					
							무채색					

현대적 색채 및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고한 바 이러한 사항들은 한복 색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시기에 유행한 드라마와 영화를 살펴보면 드라마 황진이(2006), 이산(2007)과 바람의 화원(2008) 영화 황진이(2007) 등으로 이들에 나타난 한복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3,4>를 볼 때 드라마마다 각 주요색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고리는 P(보라), Gy(회색), Wh(하양), G(초록), B(파랑) 계열의 색상이 나타났으며 치마색은 P(보라), Pk(분홍), B(파랑), Gy(회색), Bk(검정) 계열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진이에서의 치마 색상은 주로 Bk(검정)과 Gy(회색)의 빈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인 의상은 영상물의 인기에 편승하여 단시간에 손쉽게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여경, 2010). 새롭게 시도된 유행에 앞선 색상은 잡지에도 반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에게도 색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으며 한복 배색의 다양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3. 전문 매장의 한복 배색

한복 Shop에서는 고객과 함께 한복의 색상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항목 중 특히 3가지 사항이 중시된다. 한복 샵마스터는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사에 입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 1> 드라마 '황진이'
(출처: <http://www.kbs.co.kr/drama/hwangjiny/report/photo>)



<그림 2> 드라마 '이산'
(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



<그림 3> 드라마 '바람의 화원'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



<그림 4> 영화 '황진이'
(출처: <http://imgv.search.daum.net/search>)

TPO를 우선시하여, 예를 들면 호텔일 경우 조명이 밝고 화사해서 어두운 계열색상도 잘 어울리지만 교회일 경우 조명의 밝기는 자연광보다 약한 편이라 어두운 색상 보다는 밝은 계열의 색으로 추천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의 피부 톤과 체형에 맞춰 조화가 잘 되는 색상을 권하며 이때 고객이 좋아하는 색상과 선호하는 배색으로 함께 조율한다. 이와 같은 맞춤형복의 샘플스와치는 5년간 정리된 것으로 활용하여 살펴본 한복 치마저고리 배색의 경우의 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Pk(분홍)-Wh(하양)계열(8)로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Pk(분홍)-Y(노랑)계열(7), R(빨강)-Y(노랑)계열(6), B(파랑)-B(파랑), Pk(분홍)-B(파랑), Pk(분홍)-Pk(분홍)계열(4)로 나타났다. 배색 분포도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배색 중 1번도 나타나지 않은 rP(자주), Br(갈색), Bk(검정) 계열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맞춤 한복 배색의 특징은 주로 Pk(분홍), R(빨강)계열 치마에 Wh(하양), Y(노랑)계열 저고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R(빨강)계열 치마에는 Y(노랑)계열 저고리가 대부분의

<표 8> 한복 Shop 맞춤형 한복 배색 수와 분포

(上: 저고리 색, 下: 치마 색)

上 \ 下	R	O	Y	YG	G	BG	B	bV	P	Pk	Wh	Gy
R		1	6		2	1	2					
O			2					1			2	
Y	1		1				1	1		1	2	
YG				1								
G	1			1	1					1		1
BG	1		1	2						1	1	
B			2	1			4		1	1	2	
bV								1		1		
P	1		2	1					4	3	3	2
rP			1	2			1			1	1	
Pk			7	1			4	2		4	8	
Br			2	2					1	1		
Wh	1											
Gy		1	2				1			2	1	
Bk										1		

<표 9> 한복 Shop 맞춤 한복 배색 분포도

(上: 저고리 색, 下: 치마 색)

上 \ 下	R	O	Y	YG	G	BG	B	bV	P	Pk	Wh	Gy
R												
O												
Y												
YG												
G												
BG												
B												
bV												
P												
rP												
Pk												
Br												
Wh												
Gy												
Bk												

배색을 이루었고 B(파랑)계열 치마에는 B(파랑)계열 저고리와 배색이 나타났다. P(보라)계열 치마에는 P(보라), Pk(분홍), Wh(하양) 저고리 배색이 나타났으며 Pk(분홍)계열의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B(파랑), Pk(분홍)계열의 저고리와 배색을 이루었다(표 8).

유행색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잡지의 한복배색과 실제 보조 자료인 한복 Shop에서의 맞춤 배색을 비교시에 잡지의 한복 배색 특징은 R(빨강)계열 치마와 Y(노랑), G(초록), YG(연두), Wh(하양)계열의 저고리 배색을 보여준다. 흥미 있는 것은 Pk(분홍)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B(파랑), G(초록), YG(연두), Pk(분홍), Gy(회색)계열의 다양한 저고리 색상이 배색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빈도가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O(주황)계열 치

마에 Y(노랑), Wh(하양), YG(연두)계열 저고리가 배색과 P(보라)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G(연두), Y(노랑), Pk(분홍), Gy(회색)계열의 저고리, 그리고 Gy(회색)계열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P(보라), Pk(분홍)계열 저고리가 배색을 이루었고 Bk(검정)치마에는 Wh(하양), Y(노랑)계열 저고리가 함께 배색으로 보여졌다.

맞춤 한복의 배색 특징 또한 주로 Pk(분홍), R(빨강)계열 치마에 Wh(하양), Y(노랑)계열 저고리가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R(빨강)계열 치마에는 Y(노랑)계열 저고리가 대부분의 배색을 이루었고 B(파랑)계열 치마에는 B(파랑)계열 저고리 와 배색이 나타났다. P(보라)계열 치마에는 P(보라), Pk(분홍), Wh(하양) 저고리 배색이 나타났으며 Pk(분홍)계열의 치마에는 Wh(하양), Y(노랑), B(파랑), Pk(분홍)계열

의 저고리와 배색을 이루었다(표 9).

잡지에 나타난 한복 배색이 맞춤한복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배색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그 시기의 유행 색상이 실제 구매 시에도 영향을 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행한 Pk(분홍)계열의 치마 색상 P(보라), Gy(회색), Bk(검정)계열의 등장과 Wh(하양)계열의 저고리 YG(연두), Y(노랑), Pk(분홍), Gy(회색)계열의 다양한 색상이 등장하고 배색을 이룬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후 이와 같이 유관된 실제한복자료 혹은 스와치가 다양하게 확보된다면 보다 신뢰도가 큰 데이터로 한복배색의 내용 보충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V. 결론

전통복식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 문화 및 시대성을 가지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특히 복식의 색채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식된다(진단, 이연순, 2012).

최근 2005~2010년도 치마, 저고리에 나타난 한복배색의 유행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고리 색 경향은 전통 색상인 Y(노랑)계열에서 Wh(하양)계열이 높게 분포된 이유는 흰 저고리를 입었을 때의 화사함과 모든 배색에 잘 어울리는 장점과 더불어 옛것을 추구하려는 복고풍의 영향이 서로 연결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치마 색 경향은 여전히 Pk(분홍)계열과 R(빨강)계열의 치마를 주로 입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치마 색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 Pk(분홍)계열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핑크(Pink)마케팅의 영향으로 핑크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계절의 색상은 한국의 치마, 저고리 배색에도 영향을 주었다. 근래의 치마, 저고리 배색에 다양한 배색이 사용되었지만 봄·여름의 치마색은 R-rP계열, Pk계열이며 저고리 색은 Y-G계열과 Y-G, B-P, Wh-Bk계열, Y-G, B-P계열의 치마색이 가을·겨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을·겨울의 치마색은 R-rP Pk계열의 치마

색이 나타나며 봄·여름에 비해 그 빈도수는 높지 않아도 Gy-Bk계열의 치마에 R, Y, B, Pk계열의 저고리 색이 고루 분포되어진 색상의 빈도수를 보니 자연의 계절 색과 연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잡지에 나타난 한복 배색이 맞춤한복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배색이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그 시기의 유행 색상이 실제 구매 시에도 영향을 주는 사실과 더불어 Pk(분홍)계열의 치마 색상 P(보라), Gy(회색), Bk(검정)계열의 등장과 Wh(하양)계열의 저고리 YG(연두), Y(노랑), Pk(분홍), Gy(회색)계열의 다양한 색상이 등장하고 배색을 이룬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근래의 한복 배색 특징은 새로운 문화와 개개인의 취향과 피부색에 따른 색상의 다양화가 등장하고 드라마와 유행에 앞선 색상은 잡지에도 반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에게도 색상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주며 색의 사용 폭이 다양해 졌다. 또한 자연이 주는 계절색이 배색에 기초를 이루며 치마, 저고리 배색의 선택에 개인의 감성과 취향이 중요시되고 사회, 문화에 따른 한복 배색에 관한 시각적 측면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복 배색이 주는 색상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한복의 유행 배색과 앞으로의 새로운 배색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경자, 정수진. (2007). 무채색과 유채색 배색에 따른 한복착용자의 이미지 평가-빨강, 노랑, 초록 저고리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20.
- 김미진. (2006). 한국 근대 서양화에 표현된 한복의 배색에 관한 연구. *服飾*, 56(1), 4.
- 김미진. (2006). *한국 근대 색채시각자료에 표현된 한복배색에 관한 연구-회화와 잡지포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김혜영, 조우현. (2005). 근대 이후 여성 생활한복의 특징 및 변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2), 270.

- 김선아. (2008). 조선시대 치마·저고리 배색 특성에 관한 고찰 -「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2(1), 81-92.
- 김여경. (2010). 2000년 이후 인쇄매체에 나타난 한복의 조형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현실. (2011). 여자 전통한복에 나타난 색채변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이혜숙. (2009). 웨딩잡지에 나타난 한복색의 분석. *한국메이크업학회지*, 5(3).
- 이영혜, 강순제. (2007). 2000년대 한복에 나타난 배색 경향에 관한 연구. *服飾* 57(4), 59.
- 이영혜, 강순제. (2011). 2000년대 사극의상에 표현된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服飾* 61(9), 141.
- 이지현. (2007). 조선시대 저고리의 색채 및 배색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2007(1), 80.
- 진단, 이연순. (2012). 중국의 당·송·원·명·청 왕조 복식의 색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상지다인학회지*, 14(4), 63-64.
- 조우현, 이호정. (2012). 근대 유물을 통하여 본 여자한복의 전통색. *服飾* 62(8).
- 오수연. (2006). 핑크 컬러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자. *마케팅*, 40(5), 73.
- 월간 한복, 한복의 美. (2005-2010). 한복미디어.
- 웨딩21. (2005. 6 - 2010. 12) 자료 검색일 2011. 5. 11-17, 자료출처 <http://wedding21.kr>
- 마이웨딩. (2005. 3. - 2010. 12) 자료 검색일 2011. 5. 5-1, 자료출처 <http://mywedding.design.co.kr>
- 金裕卿. (1978. 3. 17). 韓國의인것...傳統의 現場(3) 韓服, 경향신문. p.5
- 김미리. (2006. 4. 13). 올 봄은 핑크빛 세상! 조선일보 자료검색일 2013. 3. 12, 자료출처 <http://fashion.chosun.com/>
- 황진이. (2006. 10. 11-2006. 12. 28), KBS2드라마, 자료검색일 2013. 3. 5, 자료출처 <http://www.kbs.co.kr/drama/hwangjiny/report/photo>
- 이산. (2007. 9. 17.-2008. 6. 16.), MBC드라마, 자료검색일 2013. 3. 5,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
- 바람의 화원. (2008. 9. 24-2008. 12. 4), SBS드라마, 자료검색일 2013. 3. 7, 자료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
- 황진이. (2007. 6. 6). 영화, 자료검색일 2013. 3. 7, 자료출처 <http://imgv.search.daum.net/search>
- 박경자, 임순영. (1983). *韓國衣裳構成*. 서울 : 修學社.
- 이재만. (2005). *한국의 색*. 일진사.